마이디팟 웹소설 투고 시놉시스 양식

페이즈(BL)

작품명	구원의 플라시보		
보낼곳	info@mydepot.co.kr		
장르 및 수위	BL 현대판타지 / 15세	필명	금대롱
희망 출간 방향	논의 후 결정	연락처	010-4206-2723
예상 완결 분량 (공백 미포함 기준)	100~150편 예상(처음 하는 것이라 글자 수 분량 파악이 어려워 편수로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가이드버스, 쌍방구원, 동갑내기, 첫사랑, 에스퍼공, 미남공, 집착공, 미인수, 성격있수, 가이드수		
무료연재 여부	있음 조아라 http://s.joara.com/4vV7P 디리토 https://drtt.io/rGDBz0t		
작가 이력	출간 이력 없음		

로그라인 / 기획 의도

혹독했던 어린시절을 거치고, 두 사람을 이용하는 주변 인물들 속에서
끝끝내 서로를 구원하는 쌍방구원 로맨스

작품 소개

에스퍼에게 필수불가결인 존재 가이드.

오직 에스퍼 선우현진만을 위해 자란 최구원,
그리고 그런 최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우현진.

“손잡아도 돼?”
“최구원…?”
“그래, 나야.”
“…잡아줘.”

구원은 대답과 함께 자신의 앞에 내밀어진 현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불안정하게 심하게 흔들리던 그래프는 구원이 현진의 손을 잡은 시점부터 완만하고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미국 연구팀에서 주장하는 ‘운명의 상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오죠”

"최구원이 가이드가 아닌데 선우현진의 믿음이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플라시보 현상으로요."
"플라시보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현진은 구원의 가이딩 효과는 물론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안정을 느끼지만
협회 연구팀에서는 구원이 아직 가이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원은 현진의 진짜 가이드일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현진의 플라시보일까?

캐릭터 소개

공/선우현진(27세) 189cm
중력 조절(염력)L급 에스퍼. 7살에 능력이 발현되어 팔려가듯 연합에 들어오게 되어 지금까지 쭉 혼자였다. 강한만큼 위험도가 높아 작전 참여 횟수가 적다. 모두 두려워하지만 뒤에서는 계륵이라며 비웃음을 사고 있다. 자신감 넘치고 오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은하게 자신감이 낮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구원 한정으로 매우 다정하며, 그에게 집착한다.

수/최구원(27세) 176cm
가이드. 고아원에서 9살에 석필에게 입양 되어 엄격하게 자랐지만, 똥고집에 성격이 있는 편이다. 생각한 말을 그대로 뱉을 때가 있어서 석필도 입 좀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평소에는 잡생각이 많지만 큰일을 앞두면 대담하고 즉흥적이다. 현진이 점점 좋아지지만, 현진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이 가이드라서 그런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조연/문태영(38세) 188cm
신체 무기화 S급 에스퍼. 성격이 나쁜편이지만 자신의 가이드인 준서와 있을 땐 온화했다. 준서가 사망 후 심한 우울증으로 임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준서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난 뒤 어쩌다보니 현진, 구원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조연/김준서(37세) 179cm
문태영의 가이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가이드를 하게 된 케이스. 성격이 수더분하고 좋은게 좋은거라며 웬만해선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석필과 하얀가운이 추진하는 연구의 첫샘플러 참여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줄거리(구체적으로)

기 양아버지인 최석필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찾아온 남자에 의해 구원은 파양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 남자가 구원을 데리고 간 곳은 일반인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특수 능력을 갖고 에스퍼와 가이드가 있는 에스퍼 국가 연합 부지였다. 그곳에서 선우현진을 만나게 되고, 구원은 현진을 위해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승 항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구원과 현진은 빠르게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는 연구원들, 그들을 승급 도구로 부는 상급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에스퍼와 가이드로 인해 소소한 따돌림부터 연구원들의 강압적인 테스트, 무리한 임무 참여 등 각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전 그리고 두 사람은 상급자들이 원하는 테스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테스트로 인해 사망한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현진은 몹시 불안해하지만, 구원은 오히려 현진을 다독이며 테스트에 임한다. 하지만 수월하게 풀리는 듯했던 테스트 겸 작전은 구원이 머물던 캠프에 적군이 침입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다. 구원을 구하기 위해 현진이 나서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진다.

결 구원은 자신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인 현진을 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가이드라는 것 외에는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구원이었지만 현진을 위해 겁 없이 적군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구원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고 현진은 폭주하게 되고, 구원은 몸을 던져 현진에게로 가 그를 진정시킨다. 두 사람은 단순히 에스퍼와 가이드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구원이 진짜 가이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도 맺게 된다.

원고

01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차례대로 내밀며 사인을 해야 하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기밀 보호를 위한 계약, 석필이 사망 후 나올 연금에 대한 것 등등. 석필의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자가 가리키는 곳에 사인을 했다.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구원의 앞에도 글자가 빼곡한 서류가 내밀어진 것은 한참 뒤였다.

파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였다.

파양이라는 단어에 놀란 구원이 빠르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하지만 석필의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저 사흘간 이어진 장례로 인한 피로를 숨기지

않은 채 물끄러미 서류를 보다가 내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매달 나오던 지원금은 끊기는 건가요?"

물음에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서 그 말을 함께 들은 구원은 구겨지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석필이고 석필의 아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인하지 않으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최석필 박사는 최구원의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석필의 아내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얼굴로 펜을 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가 다물었던 입을 다시 열었다.

"최구원은 국가 소유라는 말입니다. 최석필 박사는 잠깐 '관리'를 한 관리자이고요."

"……."

구원은 남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석필의 아내는 이해한 모양인지 조용히 남자가 가리킨 곳에 사인을 하고 구원에게 펜을 넘겼다. 얼떨결에 펜을 넘겨받았지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구원이 눈을 굴리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석필의 아내가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얼른 해."라고 재촉했다. 아홉 살에 입양되어 지금까지 가족의 정 같은 걸 느껴 본 적은 없지만, 끝이 이럴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구원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쯤은 패악을 부려 볼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사인을 하고, 서류와 펜을 남자에게 넘겼다.

"최구원씨는 저희와 함께 가면 됩니다."

"네?"

"짐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인을 마친 서류들을 정리해 네모난 가방에 넣은 남자는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구원에게 말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구원을 두고 석필의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리 안 나가요."

"네."

멀리 안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가버린 석필의 아내의 뒷모습에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남자는 몸을 돌려 아직도 앉아있는 구원을 바라봤다. 그와 동시에 얇은 나무문 너머로 조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큰 목소리가 울렸다.

"얼마 준대?"

"조용히 해. 안에 아직 있잖니."

"뭐 어때?"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

석필의 친아들 목소리였다. 내내 표정이 없던 남자는 문 너머 들려오는 대화에 알만하다는 듯 슬그머니 미간을 좁혔다가 펴곤 구원을 재촉했다. 더는 시간이 없다는 남자의 말에 몸을 일으킨 구원은 문을 나서기 전 주인을 잃은 서재를 돌아보았다. 석필에게 혼났던 기억뿐인 끔찍한 공간. 이젠 끝이다. 하지만 어째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굳어버리기라도 한 듯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힘주어 일으킨 구원은 서재 문을 열고 기다리는 남자를 따라나섰다.

멀리 안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간 석필의 아내는 친아들과 방에라도 들어갔는지 거실은 비어있었다. 고요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온 구원은 낡아서 너덜거리는 스니커즈에 발을 밀어 넣었다.

"어서."

자신의 허름한 신발 옆에 흠 하나 없이 깨끗한 두 켤레의 신발을 내려다보던 구원은 남자의 목소리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련할 정도로 머뭇거리던 지금까지와 달리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갔다.

철컥.

구원은 현관문이 닫히는 무거운 소리를 뒤로 하고 앞서가는 남자를 따라갔다.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새까맣고 큰 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준 남자가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어디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긴 할까. 구원은 입술을 슬쩍 벌렸다가 도로 다물었다.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군말 없이 차에 탄 구원이 의자에 앉자마자 문이 닫혔다. 뒷좌석의 창문은 까만 필름이 붙어 있어 밖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칸막이로 앞까지 막혀 있어 체포라도 당한 기분이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팔걸이 앞쪽에 있는 호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시동이 걸리는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남자의 태도를 봐선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앞좌석과 공간을 나누는 까만 칸막이만 볼 뿐이었다.

남자가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구원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정해 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역이었지만 자신을 국가 '소유'라고 표현했고, 석필을 '관리자'라고 했다. 석필의 직업이 연구원이었으니 노역보다는 인체 실험에 사용될 확률이 높아 보였다. 최악의 경우 장기 적출까지 생각한 구원이 고개를 저을 때 차가 멈추고 얼마 뒤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렸다.

"도착했습니다."

바깥은 해가 져 차 안보다 어두웠다. 차에서 내리니 신발 밑에 깔린 자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공기가 구원을 감쌌다.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아, 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2층짜리의 아담한 주택을 가리킨 남자는 구원의 대답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안주머니에서 카드키와 명함을 꺼내 건넸다.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네."

"내일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신의 앞에 내밀어진 카드키와 명함을 받아 든 구원은 아까와 같이 "네."하고 답한 뒤 무거운 발을 움직여 집 앞으로 갔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선택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낮은 담장 높이에 맞춘, 보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대문을 열고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서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며 주변을 밝혔다. 구원은 카드키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고개를 돌려 남자가 아직도 있는지 확인했다. 흐트러짐 없이 곧은 자세로 서 있는 남자가 구원을 보고 있었다. 그런 남자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인 구원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

현관을 닫자마자 참았던 숨을 뱉듯 긴 한숨을 토해냈다. 긴장으로 뻣뻣했던 몸에 힘을 푼 구원은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이미 누군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온기가 돌았지만 생활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가 새것이고, 하얀색이라서 그런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집임에도 누가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구원은 쭈뼛거리며 집으로 들어가1층 제일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오렌지빛 간접등으로 환한 거실과 다르게 어둑어둑한 방 안은 푹신하고 아늑해 보이는 커다란 침대와 장롱과 작은 서랍장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원은 당장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문을 닫고 도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9시를 넘기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던 구원은 갑자기 들려오는 꾸르륵 소리에 배를 손으로 감쌌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까지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긴 했지만 분위기에 눌려 먹는 둥 마는 둥 했던데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연합 소속이라던 남자 때문에 저녁도 먹지 못했다. 집 상태를 봐서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선뜻 손을 댈 수 없었다. 구원은 저녁은 굶기로 결정한 뒤, 엉덩이를 당겨 소파에 반쯤 걸쳐 앉은 채 긴 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분명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걸요."

"설마요."

"아니요, 확신해요. 지금까지 이 집에 머물렀던 98% 가 그랬어요."

동이 틀 무렵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앉은 채로 잠 들었던 구원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잘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떴다. 그리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시야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두 눈을 꾹 감고 손으로 눈두덩이를 눌러 비비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쓰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최구원씨,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상대는 인내심이 별로 없는 모양인지 초인종 멜로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지듯 외쳤다. 구원은 문을 열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 한 명과 어제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다줬던 검은 정장의 남자였다. 퀭한 구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남자에게 보라는 듯 턱짓했다. 남자는 짧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의 무례한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혹시 불면증이 있습니까?"

"그냥 불안해서 못 잔 거겠죠. 그쵸?"

남자의 질문에 하얀 가운은 빠르게 대꾸하고 구원을 바라봤다.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여기서 비비고 있을 여유 없어요. 일단 구원씨는 얼른 씻고 오세요. 아침 만들어줄게요."

둔해진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하얀 가운은 구원의 어깨를 잡아 돌렸다. 그리고 구원이 전날 열어봤던 방문 맞은편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등을 떠밀었다. 하얀 가운은 애초에 허락 같은 건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듯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빨리 빨리요. 늦으면 난리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씻고 오세요."

구원은 손뼉까지 치며 재촉하는 하얀 가운의 말대로 욕실로 들어갔다. 머리가 멍해서 이 상황에 대해 묻거나 할 정신이 없어 일단 시키는 대로 했다. 샤워부스에 들어가 씻는 동안 웅얼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지만 샤워기 소리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 씻고 나오니 옷걸이에 새 옷과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 검은 정장의 남자나 하얀 가운 둘 중 하나가 옷을 가져다 놓으며 무어라 말한 모양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차렸어요."

씻고 주방으로 가니 네모난 테이블 위에 구운 식빵과 샐러드 한 줌, 방울토마토가 담긴 접시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어색하게 묵례를 한 구원은 식사가 놓인 자리 앞에 앉아 잘 먹겠다는 인사를 하고 포크를 들었다.

"냉장고에 먹을 거 많으니까 식사 꼭 챙겨요."

구원이 방울토마토를 입 안에 넣는 걸 보던 하얀 가운이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보여주며 말했다. 냉장고 안은 포장을 뜯어 접시에 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조리가 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포장만 뜯어 접시에 담은 것 같았다. 하지만 샐러드와 토마토는 신선했고, 식빵은 토스터로 갓 구운 모양인지 따뜻하고 바삭했다. 커피 또한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구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포크로 양상추를 찍어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맛있다. 근데10시 30분에 온다고 하지 않았나.

남자와 하얀 가운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연구원들의 요구 사항을 잘 따를 것.

큰 소리 내지 않을 것.

질문하지 않을 것.

식사를 마쳤는데도 검은 정장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다. 그러자

하얀 가운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기가 한 말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며 위의 것들을 읊었다. 대단한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지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규칙인'질문하지 않을 것.' 때문에 구원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필에게 입양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다. 반항하지 말고 그저'네.'하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10시30분이 되자 칼같이 집을 나선 그들은 대문 앞에 주차된 까만 차에 몸을 실었다. 어제 탔던 차와 다르게 앞좌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칸막이가 없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의 셋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하얀 가운도 이동 중에는 내내 조용했다.

"여기 복잡하니까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아직 칩도 이식 안 해서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하얀 가운은 구원을 자신과 검은 정장 사이에 세우며 말했다. 구원은 칩 이식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었지만 하얀 가운이 말한 규칙 때문에 그저 조용히 둘 사이에 선 채 걸을 뿐이었다. 온통 하얗기만 한 벽 가운데에는 긴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중간중간 화살표와 함께'제1 연구실' 같은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위치 안내인 모양이었다.

건물 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동안 구원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고요한 복도에 세 사람의 발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딱 맞춰서 왔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최구원이야?"

사원증과 지문, 홍채까지 인식하고 난 뒤에야'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문이 열렸다. 문을 열며 하얀 가운이 인사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각각 말을 뱉었다. 대부분 검은 정장과 하얀 가운 사이에 서 있는 구원을 보고'진짜 최구원'이냐며 쑥덕거리기 바빴다.

"오전 훈련 끝났나요?"

"네, 예정대로 진행했고, 지금 쉬고 있어요."

하얀 가운의 질문에 연구원 중 한 명이 대답하며 어딘가를 턱짓했다. 그의 턱짓에 모여 있던 연구원들이 좌우로 갈라져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사람들이 가리고 있던 곳엔 커다란 화면이 있었다.

"오늘따라 화려하네요."

"흠."

하얀 가운이 못마땅한 얼굴로 조소하며 중얼거렸고 검은 정장은 거기에 동조했다. 구원은 둘의 사이에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바짓단을 움켜쥘 뿐이었다.

화면에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02

"바로 하죠."

"네. 구원씨, 따라오세요."

"네?"

"이리로."

하얀 가운의 말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려 보이는 연구원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나와 구원에게 말했다. 구원은 누가 자신에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줬으면 했다.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수많은 눈이 구원의 반응을 살폈지만,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나서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까딱이는 연구원의 뒤를 따랐다.

"최 박사가 잘 가르쳤나 본데?"

짧은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금방 뒤를 따르는 구원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속닥거렸

다.

구원은 연구실 입구보다 훨씬 두껍고 무거워 보이는 문을 열고 하얗고 긴 복도를 걸었다. 앞장서서 걷던 연구원은 가끔 뒤를 흘끔거리며 자신을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 속 장소는 생각보다 먼 것 같았다. 10분 정도 걸으니 굳게 닫힌 문 하나가 더 보였다. 연구실에서 이곳으로 올 때 봤던 문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보였다.

"여기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세요."

할 말만 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는 연구원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구원은 손에 차오른 땀을 닦기 위해 바지에 손바닥을 비볐다. 혼자 서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얼마간 혼자 서 있었을까. 눈앞에 있던 거대한 문이 열렸다. 열리는 문을 보고만 있자 어디선가 하얀 가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원씨, 들어가세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다. 석필이 구원에게 쓰던 말투였다. 익숙하지만 그만큼 싫어했던 말투였기에 몸에 힘이 절로 들어갔다. 마른침을 삼킨 구원은 주먹을 꾹 쥔 채 무거운 발을 억지로 움직여 열린 문 너머로 들어갔다. 구원이 여태 걸어왔던 복도와 마찬가지로 하얗기만 한 공간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등 뒤의 문이 닫혔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닫힌 문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길 따라서 계속 가세요."

하얀 가운의 목소리에 구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으며걸음을 뗐다.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진짜 관리 잘했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훨씬 순종적인데요?"

시키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화면 속 구원을 보며 연구원들이 떠들었다. 하얀 가운도 팔짱을 낀 채 제법 심각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구원이 좀 더 빨리 걸어줬으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란 생각에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다.

하얀 가운이 시키는 대로 길을 따라 걷던 구원은 온통 하얗기만 한 공간 덕에 자신이 직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이나왼쪽으로 길을 꺾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 걷기만 하던 구원은 다시 한번 나타난 문에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그 전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태 걸어왔던 길과 달리 조금 어두운 공간이 나왔다. 구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하얀 가운이 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발을 움직였다. 다음 지시가 없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석필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원은 문 안으로 들어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발을 멈췄다.

화면 속에 있던 피범벅의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세요."

최악의 경우 장기 적출까지 떠올렸던 구원은 생각을 바꿨다. 어쩌면 개죽음일지도 모르겠다고.

피를 뒤집어쓴 남자는 피곤하다는 듯 무릎에 두 팔을 걸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주변은 피가 낭자했고, 남자도 피범벅인데 맨몸으로 가까이 가라니. 구원은 당장에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진작 닫힌 문을 자신의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춤주춤 앉아 있는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더, 더, 더.

거리를 더 좁히라는 하얀 가운의 요청에 구원은 울고 싶었다. 연구실에서 여기까지 족히30분 가까이 걸렸다. 이렇게 뚝 떨어진 곳에 두고 화면으로만 관찰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테였다. 거리를 좁힐수록 수명이 빠르게 깎여 나가는 듯했다. 구원은 가빠지는 숨을 애써 숨기며 피범벅의 남자 바로 앞까지 갔다.

"....."

아무런 반응이 없다.

꿀꺽. 구원은 마른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괜히 어깨를 떨며 움찔거렸다. 하지만 상대는 미동도 없다. 하얀 가운의 요구도 없었다. 구원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눈만 굴리며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고작해야5분, 길어야10분 정도 지났을 것이 분명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하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구원이 주춤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가 완전히 일어나 서늘한 눈으로 구원을 내려다봤다. 일자로 굳게 닫혀 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지더니 남자는 구원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릴 때랑 똑같네."

구원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아."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던 구원은 하얀 가운이 아침에 얘기했던 질문 금지 규칙을 떠올리고 얼른 입을 닫았다. 그 모습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짓던 남자는 고개를 들어 허공에 대고 말했다.

"이제 됐어요."

속삭이던 때와 다르게 무척 차가운 말투였다. 그의 말에 스피커에서 하얀 가운의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또 보자."

하얀 가운의 대답을 들은 남자는 다시 구원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구원이 들어왔던 곳과 정반대 편에 위치한 문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갔다.남자가 모습을 감추고 난 뒤 긴장이 풀린 구원이 휘청거렸다.

"구원씨, 데리러 갈게요."

하얀 가운의 목소리에 구원은 순간 핑 도는 시야에 눈을 감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 있었던, 이젠 비어

있는 의자가 있었지만 거기엔 앉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 채로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연구원을 기다렸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 걸린 시간을 가늠해 보며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에 한숨을 쉰 구원은 얼굴을 감쌌던 손을 내렸다. 그리고 바닥에 묻어 있는 피 묻은 발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보육원에서 석필에게 입양되던 순간부터 이 의문을 품지 않아 본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앞뒤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스물일곱 살이 된 지금도 변한 것은 없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의문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구원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장기 적출도 아니었고, 개죽음도 아니었다. 어릴 때 본 적도 없는 남자, 또 보자고 말하고 몸을 돌리던 순간 보이던 만족감이 느껴지던 남자의 미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구원씨."

바닥 위에 점점이 떨어져 있는 피와 피 묻은 발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을 거듭하던 구원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들었다. 거기엔 전동 카트를 타고 있는 하얀 가운이 있었다.

저걸 타고 이동이 가능했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후에 교육 들으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일단 좀 먹고요."

이후 모든 이동은 전동 카트를 이용했다. 의문의 방에서 연구원들이 있는 연구실까지, 연구실에서 식당이 있는 곳까지. 이곳은 넓어서 실내 이동은 전동 카트로 하고, 실외는 차를 이용한다고 하얀 가운이 말했다.

"사람이 별로 없죠? 식당이 여기저기 많거든요."

규모에 비해 사람이 별로 없는 식당을 둘러보는 구원을 보고 하얀 가운이 말했다. 그리고 후룩, 부러 소리를 내어 국을 떠먹고는 구원의 식판을 턱짓하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다. 구원은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거절하지 않고 수저를 들었다.

식사를 끝내고 간 곳은 연구실이 있는 건물을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했다. 이동

중에 하얀 가운이 말했던 것처럼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할 때는 차를 이용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건물 입구에서 이름을 말하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을 하곤 구원을 홀로 남겨둔 채 가버렸다.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던 구원은 더 이상 놀랄 기운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건물 입구로 갔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회전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데스크에서 구원을 붙잡았다.

"아, 안녕하세요. 최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은 하얀 가운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데스크에 앉아 있던 사람은 구원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조금 뒤 아,하고 짧게 탄성하고는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서랍을 뒤져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꺼냈다.카드를 어딘가에 꽂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 사람은 그것을 데스크 위에 올려 두며 말했다.

"임시 출입증이에요. 들어갈 때랑 나갈 때 사용되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교육 끝나고 나갈 때 여기로 다시 반납하세요."

"네, 근데 어디로 가야,"

"정면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3층으로 올라가시면 교육실 바로 보이세요."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을 펼쳐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안내한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은 끝났다는 듯 합죽이처럼 입을 다물었다. 더 말을 걸 생각도 없었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괜히 머쓱해진 구원은 데스크 위에 놓인 임시 방문증을 챙겨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3층으로 올라갔다.

안내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교육실 문이 보였다. 구원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외부에서 가져온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집에 두고 온 것을 떠올렸다. 아까 하얀 가운과 점심을 먹었으니 아무리 늦었어도1시~2시 사이일 거라 예상하며 교육실로 들어간 구원은 텅 빈 곳에 띄엄띄엄 놓여 있는 의자 중 단상과 조금 떨어진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앉았다.

"시간 맞춰서 제대로 데려다 놨네. 반가워요, 구원씨."

구원이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육실 문이 열리고 가볍다 못해 방정맞은 느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구리에 책 두 권을 끼고 나타난 사람은 긴 머리를 대충 틀어 올려 묶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긴 다리를 휘적휘적 움직여 순식간에 구원 앞까지 온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책 중 한 권을 내밀었다.

"어제부터 계속 정신없었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단상 바로 앞에 앉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중간쯤에 앉은 것인데, 상대는 단상 근처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바로 앞자리에 털썩 주 앉았다.

"우선, 에스퍼와 가이드란 무엇일까요?"

장난스럽고 가벼운 말투였다. 마치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냐고 묻는 것 같은 말투였지만, 구원은 생전 처음 들어 보는 단어에 무엇을 묻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저요, 저요."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깜빡이는 구원을 보고 상대가 웃으며 손을 들며 외쳤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에스퍼는 특수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개인마다 능력은 다르며, L급부터C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신체 능력이 보통 인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염력, 경화, 신체 무기화, 원소계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는 구원의 표정이 미묘했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기 때문이다.

"에스퍼는 일부 국가들이 연합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를 잡아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있답니다. 한국은 여덟 번째로 연합에 가입했고 인구수에 비하면 가입을

빨리 한 편이에요.”

“…….”

“그럼 가이드는?!”

구원은 자신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 안경 너머의 눈이 부담스러웠다.

“가이드는 에스퍼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일반인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한 만큼 예민한 그들이 안정을 취하고,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죠.”

“…….”

“이쯤 되면 감이 오죠?”

“무슨….”

“최구원씨는 가이드랍니다!”

구원은 상대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안 놀랐어요?”

구원의 무반응에 상대가 실망한 듯 얼굴 옆으로 손가락까지 쫙 펼쳐 들어 올렸던 두 손을 툭 내리며 물었다.

“아, 놀랐어요. 놀랐는데….”

어물거리는 구원을 빤히 보던 상대는 “흠… 그럼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라고 외치곤 실실 웃으며 뜸을 들였다. 그리곤 단둘뿐인 교육실을 둘러보고는 갑자기 몸을 숙이며 구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구원은 군말 없이 상대를 따라 몸을 숙여 거리를 좁혔다.

“사실 구원씨가 가이드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네?"

"하지만 구원씨는 가이드가 아니어도 가이드가 되어야 해요."

안경 너머로 초승달처럼 휘어진 눈이 번뜩거렸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03

교육은 오후 내내 이어졌다.

6시가 되기5분 전에 울린 알람 소리에 내내 떠들던 것을 멈춘 교육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툭툭 털어냈다.

"제가 준 책 틈나는 대로 꼭 읽어 보세요."

상대는 책상 위에 놓인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는 교육실을 떠났다.

얼마 뒤 연구실에서 본 뒤로 내내 보이지 않았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구원을 차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내일부터 선우현진씨가 구원씨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게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질문 금지 규칙을 떠올린 구원은 벌렸던 입을 다물었다.

"아침… 8시30분에 도착할 겁니다. 시간 맞춰서 준비하세요."

핸드폰으로 무언갈 확인한 남자가 시간을 알려주고는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차로 돌아갔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검은색 차를 멍하니 바라보던 구원은 현관의 자동 센서

조명이 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몸을 돌렸다.

구원은 당장 아무 데나 눕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일단 씻었다. 샤워를 했는 데도 머리가 멍했지만, 침대로 가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상황을 봐서는 당분간은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 분명했기에 오늘이 아니면 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

1층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거실, 침실, 욕실, 주방이 있었고 욕실 옆에 작은 드레스룸이 있었다. 그리고 주방 뒤로 베란다가 있었고,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도 있었다. 2층은 게스트룸으로 보이는 방 두 개와 욕실, 발코니가 전부였다. 짐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더니 정말 집 곳곳에 필요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사이즈를 딱 맞춘 옷과 신발들이 소름 돋긴 했지만 그 외에 수상해 보이는 물건은 없었다. 감시카메라라도 달아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 안심과 허탈함을 함께 느끼며 거실로 돌아온 구원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다.

"끄응…."

구원은 앓는 소리를 내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저녁 식사는 생각도 없는지 눈을 감은 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기 바빴다.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피를 뒤집어쓴 남자, 그런 남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길 꺼리는 연구원들, 에스퍼와 가이드, 가이드가 아니어도 가이드가 되어야 하는 자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였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고자 어제 있었던 일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지만'왜?', '어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와 같은 의문만 남을 뿐이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했고, 음흉해 보이기도 했던 교육원의 표정과 목소리를 떠올리던 구원은 갑자기 돋아나는 소름에 팔뚝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당분간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확실하게 알았다. 구원은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즐기기까진 못해도 잠이라도 잘 자고,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오늘은 침대에서 편히 자기로 했다.

밥은… 내일부터 챙겨 먹기로 했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구원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감은 채 손을 더듬거려 알람을 껐다. 침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구원은 여러 번 뒤척거린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나흘 만에 맛본 단잠이었다. 좀 더 자고 싶었지만 괜히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 비척비척 침대를 벗어났다.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문을 연 구원은 거실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보고 놀라 움직임을 멈췄다.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 상대가 구원에게 다가왔다.

“일찍 일어났네.”

“누구….”

어제 만났던 사람이다. 피를 뒤집어쓰고 자신에게 어릴 때와 똑같다고 했던 그 남자. 누구냐고 물으려던 것을 관두고 입을 다문 구원은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명백히 겁먹은 움직임이었음에도 남자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긴 다리를 움직여 성큼성큼 다가온 남자는 딱 한 걸음을 남겨두고 발을 멈췄다.

“선우현진.”

“……”

이름을 말하며 악수를 청하는 손을 구원은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윤팀장이 얘기 안 했나?”

구원의 행동에 남자가 중얼거렸다.

“아니, 얘기 들었어요. 말씀하신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놀라서…. 최구원입니다.”

약간의 짜증이 섞인 남자의 중얼거림에 구원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밀어진 남자의 커다란 손을 얼른 맞잡았다가 놓았다. 악수라기보다는 그저 손바닥을 맞대고 살짝 쥐었다가 놓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진은 구원의 이런 행동을 걸고넘어지지 않았다. 그저 힘없이 닿았다가 스르륵 떨어지는 구원의 손을 물끄러미 보다가 입을 열었

다.

"씻고 와, 아침 만들어 줄게."

"네? 아, 네. 그럼…."

구원은 석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인간은 원래 죽고, 죽는 시기는 제각각이니까. 종종 저 인간 언제 죽나 생각하기도 했던 구원이었기에 석필의 장례식 동안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파양 서류에 사인을 할 땐 좀 놀랐다. 석필이 사망한 후 이런 전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파양'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하나 놀랄 일뿐이었지만, 대부분 놀라움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피를 뒤집어쓰고 있던 남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은 놀라운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 사람, 선우현진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어제와 다르게 검은색 제복을 차려입은 현진은 피범벅이었던 때와 다르게 아주 말끔한 상태였다.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구원이 처음 본 모습은 어지간해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지금 행색이 멀쩡하다고 해서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친근하게 굴 수 없다는 뜻이다.

구원은 씻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상해 보았다.

첫째, 문을 열자마자 선우현진에게 죽임을 당한다.

둘째, 식사 중 선우현진에게 죽임을 당한다.

셋째, 이동 중 차 안에서 선우현진에게 죽임을 당한다.

넷째, 어제 선우현진을 만났던 공간에서 죽임을 당한다. (연구원들이 이를 지켜본다.)

뭐가 됐든 예상의 끝은 죽음이었다. 죽임을 당하는 시간만 다를 뿐이었다.

구원은 고개를 들어 욕실 벽 높은 곳에 붙어 있는 환풍구를 올려다보았다. 뜯어내고 탈출하기엔 성인의 머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였다. 구원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욕실 문 앞엔 아무도 없었다.

"씻는 데 오래 걸리는 편인가 보네."

주방으로 가자 현진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쪼글쪼글해진 손끝이 안 보이도록 슬그머니 주먹을 쥔 구원이 대답 대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요리는 못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했어."

"네, 감사합니다."

"…아직40분 정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

"네."

구원은 현진의 맞은편에 앉아 포크를 들었다. 동그랗고 납작한 큰 접시 위에는 샐러드, 사과, 삶은 계란, 토스터에 구운 잼을 바른 식빵이 놓여 있었다. 전날 하얀 가운이 차려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컵엔 커피 대신 따뜻하게 데운 흰 우유가 담겨 있었다.구원이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먹을 것 중 하나였다.

"잘 먹겠습니다."

머그잔을 손에 쥔 구원이 꾸벅 고개를 숙이곤 흰 우유를 마셨다. 현진은 별말 없이 그 모습을 보기만 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곤 했지만 구원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따뜻하게 데운 흰 우유를 마실 수 있다고 한들 현진과 단둘이 있는 것이 편한 건 아니었다. 두 번째로 가정했던 식사 중 죽음에 대한 걱정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혹시나 현진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되어 구원은 식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타."

구원의 빠른 식사 때문에 둘은 예정보다 일찍 출발하게 되었다. 조수석 문을 손수 열어주는 현진을 보고 한숨이 나오려는 걸 참은 구원이 묵례를 하고 차에 탔다. 보닛을 빙 돌아 운전석에 탄 현진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차가 나아갔다.

도로 위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흔한 가로수도 없는 삭막한 길을 달리

는 동안 현진은 운전에만 집중할 뿐 구원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다.구원은 차창에 비친 현진의 옆얼굴을 흘끔거렸다. 현진은 그런 구원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뭐 하는지 들었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구원은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빠르게 안전벨트를 푸르고 문으로 손을 뻗었다. 그 와중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현진의 질문에 움직임을 멈춰야 했다.

"아니요."

"음."

현진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구원을 빤히 바라봤다. 드디어 죽나 싶었으나 현진은 일단 들어가자며 차에서 내렸다.

"어? 일찍 왔네요."

현진과 구원의 이른 등장에 하얀 가운은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인사 아닌 인사를 건넸다. 다른 연구원들은 가볍게 눈인사를 하거나 말끝을 흐리며 인사를 하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어색한 분위기에 구원은 괜히 머쓱해져 바짓단을 움켜쥐었다.

"아직 다 도착 전인데. 뭐,미리 준비하고 있어도 되니까요."

하얀 가운은 전날 구원이 들어갔던 문을 연 뒤 안내하듯 팔을 들어 보였다. 장난이라기보다는 골리는 것 같은 말투와 행동이었다. 구원이 눈치를 보며 걸음을 떼려 했지만 현진의 손이 더 빨랐다. 구원의 어깨를 잡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곤 하얀 가운을 보며 말했다.

"설명해요."

"?"

"오늘 뭐하는지, 설명하고 보내라고요."

"....."

"설명할 시간 충분하잖습니까. 아직 다 도착 전인데."

현진은 대답 없는 하얀 가운에게 한 마디 더 덧붙였다. 그리고 구원의 어깨를 툭툭 가볍게 두드린 뒤 하얀 가운이 열어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말없이 있던 하얀 가운은 현진이 어느 정도 멀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문을 닫고는 짓씹듯"계륵 주제에."라고 중얼거렸다.

"이동하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뻘쭘하게 서 있는 구원을 향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하얀 가운이 말했다.

"어제 교육 들어서 에스퍼랑 가이드에 대해서는 알죠? 현진씨는 에스퍼고, 구원씨는 가이드예요."

'사실 구원씨가 가이드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하얀 가운의 말에 어제 교육실에서 들었던 말이 겹쳐서 들렸다.

"가이드는 에스퍼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건 알죠? 오늘은 현진씨가 구원씨로 인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구원은 대답 없이 눈만 깜빡거렸다.

"가이드가 에스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킨십과 점막 접촉이지만,

일단 현진씨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능력 구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떤,”

“우선 일정 거리 내에 함께 있을 때의 상태를 볼 거예요. 시설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건 힘들어서 구원씨는50m 떨어진 거리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보호 장비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신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 떠드는 하얀 가운을 보며 구원은 잠시 잊고 있었던‘넷째, 어제 선우현진을 만났던 공간에서 죽임을 당한다.(연구원들이 이를 지켜본다.)’ 가정을 떠올렸다.

“절대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었다. 구원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마당에 멱살이나 한번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얀 가운이 빙긋 웃어 보이며 닫았던 문을 다시 열어주었다.

어제와는 다른 연구원이 전동카트를 이용해 구원을 데려다주었다. 내내 아무 말이 없던 연구원은 작은 감옥 같기도 하고, 유리관 같기도 한 투명하고 네모난 상자의 문을 연 뒤 그 안을 가리키며“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했다. 구원이 머뭇거리자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한 연구원이 어서 들어가라며 재촉했다. 구원은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며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원은 여러 개의 잠금쇠를 이용해 문을 걸어 잠그고 떠났다. 홀로 남은 구원은 상자 바깥을 보았다. 어제와 다르게 크기와 색이 제각각인 여러 개의 공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게 뭐야….”

구원이 중얼거리는 것과 동시에 부저음이 들렸다. 귀를 때리는 소리에 놀라 주춤하는 사이 구원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문이 열리고 현진이 들어왔다. 아까 입고 있었던 제복과 다르게 활동하기 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준비됐나요?”

하얀 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현진은 대답이 없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지름 10cm, 빨간색 타깃으로 진행합니다.”

04

“바로 시작하죠. 우선 지름 10cm, 빨간색 타깃으로 진행합니다.”

하얀 가운이 말하자 바닥에서 빨간색 공들이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터져나갔다.

“지름5cm, 파란색 타깃.”

스피커에서 하얀 가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파란색의 작은 공이 떠올랐고, 순식간에 터져버렸다. 설마 저렇게 터뜨려 죽이는 건가. 구원은 마른침을 삼키며 땀으로 흥건해진 손바닥을 바짓단에 문질렀다. 그러는 사이 타깃은 더 세밀해졌다.

“지름10cm 파란색3개, 지름5cm 빨간색2개, 지름3cm 검은색4개.”

요구는 몇 번 더 이어졌고, 현진은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 과정은 현진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루틴이었다. 집중력이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 습관처럼 하는 것이었다. 마치 밥을 먹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외출할 때 잠긴 현관 문고리를 한 번 돌려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구원은 그저 곧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에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다. 하얀 가운은 구원으로 인해 현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능력을 구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 설명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다음 가겠습니다.”

하얀 가운의 말에 현진이 몸을 돌려 들어왔던 문 앞으로 가 섰다. 그 뒤로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모를 로봇들이 바닥에 남아 있는 공과 터진 공 조각들을 순식간에 주워담아 사라졌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구원은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며 손바닥을 문지르고 있던 바짓단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구원의 예상과 다르게 부저음이 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의 문이 열렸다. 현진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 셋이 훈련실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

셋 중 한 사람이 현진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현진은 반응이 없었다.

"모의 훈련30분, 휴식5분 패턴으로 세 번 연달아 진행합니다. 현진씨는 페널티 레벨적용합니다."

"레벨8? 너무한 거 아니야?"

"미쳤네."

"목숨 걸고 두들겨 맞으라는 건가."

"못해도 레벨9는 해야 골절은 면할 텐데."

"대신 오늘 하루 구르면 이틀 훈련 빼준다잖아."

"이틀 동안 회복실에서 못 나올 듯."

"근데 페널티 레벨 8이 뭐였지?"

"능력20%만 쓰기 아닌가?"

"아, 괜히 지원했다."

하얀 가운의 목소리에 추가로 들어온 셋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떠들어댔다.

곧 부저음이 울렸고, 조명이 밝아졌다. 갑자기 밝아진 조명에 눈을 꽉 감았다가 뜬 구원은 순식간에 현진에게 달려드는 세 사람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막상 현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 사람이 코 앞까지 다가온 뒤에야 몸을 피했다.

콰광! 굉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한발 빠르게 피한 현진 덕에 세 사람의 능력이 충돌한 것이다. 셋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욕을 뱉으며 빠르게 몸을 돌려 현진을 쫓았다. 누군가는 불을 쐈고, 누군가는 전기를 쏘아대며 현진을 쫓았다. 또 누군가는 맹수로 변해 현진에게 덤볐다. 하지만 세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진은 능력도 쓰지 않은 채 그들을 피해 다녔다.

"야, 계속 피하기만 할 거냐?!"

괜히 지원했다고 궁시렁거렸던 에스퍼가 약이 잔뜩 올라 소리쳤다. 현진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쏘아지듯 빠르게 내달렸다. 정면에서 달려오는 현진을 보고 놀란 그가 마구잡이로 불을 쏘아댔다. 동그란 모양의 불이 탱탱볼처럼 여기저기로 튀기도 했고, 조준 없이 아무렇게나 쏘아진 불줄기에 오히려 근처에 있던 다른 두 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저 미친놈이!"

이리저리 튀는 공 모양의 불이 정수리를 스쳐 머리카락이 탈 뻔한 전기 속성 에스퍼가 소리 지르며 허공에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부터 뻗어 나온 전기가 하얀빛을 뿜으며 현진의 등을 덮치려 했다. 하지만 현진은 그보다 빠르게 불 속성 에스퍼의 팔을 잡아 몸을 돌려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아악!!"

순식간에 휘둘리듯 돌려진 몸은 강한 힘에 의해 떠밀려 나갔다. 방어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정통으로 받아낸 불 속성 에스퍼가 비명을 질렀다. 상자 구석에 등을 딱 붙이고 덜덜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원은 비명에 놀라 눈을 꽉 감으며 귀를 틀어막았다. 석필 덕에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전기통구이가 되는 걸 본 적은 없었다. 터져 죽을 위험에선 멀어진 것 같았지만, 한 시간 반 동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고역이었다.그런 구원의 상황을 알 리 없는 에스퍼들은 저들끼리 공격을 주고받느라 바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맹수로 변한 에스퍼와 전기 속성 에스퍼가 현진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듯했지만 말이다.

반면 현진은 평소와 다르게 가벼운 몸에 만족하고 있었다. 구원을 만난 어제부터 생애 처음으로 늘 신경을 거스르던 이명이 들리지 않았다. 너무 선명하다 못해 날카로워 보이던 시야도 부드러워지면서 욱신거리던 눈 주변 통증과 누군가에 의해 쥐어짜이는 것 같

던 두통도 사라졌다. 페널티 때문에 손목, 발목에 착용한 족쇄로 인해 느껴져야 할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보단 페널티 레벨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에스퍼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레벨이었다. 그럼에도 현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몸을 느끼며 약간의 흥분까지 느꼈다.

"30분까지 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커다란 화면을 빤히 바라보던 어떤 연구원의 말에 짧게 한숨을 쉰 하얀 가운이 팔짱 끼고 있던 팔을 풀고 버튼을 눌렀다.

"1차 훈련 중단합니다."

맹수로 변한 에스퍼의 머리를 틀어쥐었던 현진이 훈련 중단 소식에 순순히 손에서 힘을 풀었다.그대로 바닥에 처박힐뻔한 맹수로 변한 에스퍼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착지했다. 부상으로 왼쪽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불 속성과 전기 속성 에스퍼들도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도 훈련 전 현진에게 골절과 장기 파열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단단히 일러둔 것이 먹힌 듯했다. 다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발로 걸어서 물러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나온 데이터만 봤을 땐 확실히 다르네요."

"원래도 능력 구현 레벨은 높았지만 최구원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신기해요. 스트레스 지수도 훨씬 낮아졌어요."

"그러게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교해질 수 있죠? 어제 했던 훈련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큰데요."

"최박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억울해하시겠어요. 센터장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인데."

선을 넘는 말이 어떤 이의 입에서 튀어나왔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1차 훈련 영상을 돌려보고 당장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비교하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하얀 가운 역시 그들 사이에 껴 데이터를 보며 턱을 문질렀다.

훈련은 예정대로3차까지 이루어졌다. 골절이나 내장 파열이 아닌 이상 가벼운 가이딩

을 통해 쉽게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차 훈련까지 모두 마친 세 에스퍼는 제 발로 걸어 나가긴 했지만 상태가 좋지 못했다. 반면 현진은 그들과 다르게 가뿐한 상태였다.

현진은 세 에스퍼가 훈련실을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뒤 구원이 갇혀 있는 상자로 다가갔다.그리고 여러 개의 단단히 잠겨 있는 잠금쇠를 한 손으로 가볍게 부수고 문을 열어주었다. 잔뜩 겁에 질려 서 있을 기운도 없었는지 구원은 상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흥건하게 젖은 머리칼과 티셔츠를 보고 미간을 구긴 현진이 물었다.

"괜찮아? …그래도 울진 않았나 보네."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든 구원이 주춤주춤 몸을 일으킨 뒤 "네? 아니요, 아, 네. 네."라고 횡설수설 말을 뱉었다.그 모습을 잠자코 보고 있던 현진이 다시 물었다.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괜찮습니다."

"……."

"……."

"안, 안 괜찮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후에 잡힌 훈련 취소하자고 할 거야."

"그럼 안 괜찮습니다."

현진은 일곱 살 때부터 에스퍼 부대에 입소해 이십 년을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눈치를 보며 빠르게 눈을 깜빡이고는 바짓단을 꾹 쥐는 구원을 보고 웃음이 나려는 걸 꾹 참은 현진이 가볍게 헛기침했다. 석필은 자신에게 '최구원은 생각보다 똑똑해. 훈련만 잘 시키면 너에게 걸맞은 가이드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구원의 모습은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곧 널 데리러 올 거야. 그럼 연구실로 가서 얘기해. 내가 오후 훈련은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

"그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내 줄 거야."

"…네."

"대신 오후에는 내일 하려고 했던 일들 처리해야 하니까 연구실 건물 앞에서 기다려. 나도 옷 갈아입고 갈게."

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진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곤 몸을 돌려 훈련소를 나갔다. 얼마 뒤 연구원이 전동카트를 이용해 구원을 데리러 왔다. 부서진 잠금쇠를 보고 부들부들 떨긴 했지만, 금방 진정하고 구원을 태워 연구실로 이동했다. 구원은 현진이 시킨 대로 "선우현진이 오후 훈련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시간 반 만에 초췌해진 몰골로 나타난 구원의 상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연구원들은 그저 오후 훈련 취소에 대해 술렁거렸다. 하지만 하얀 가운은 별말 없이 알겠다고 말했다.

"그럼 구원씨는 오후에,"

"저는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가보세요. 입구까지 혼자 갈 수 있죠?"

"네."

"그럼."

입꼬리만 조금 끌어 올려 웃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인 하얀 가운을 향해 구원은 얼른 묵례하고 연구실을빠져나왔다.

구원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었다.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연구소 건물 앞에 선 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보기 위해 높디높은 벽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보안을 위한 벽이겠지만 구원에겐 그저 도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답답함에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낀 구원은 차분해지기 위해 애쓰며 숨을 골랐다.

한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데도 높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높은 벽을 보며 구원은 저길 기어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진이 탄 차가 구원의 앞에서 멈췄기 때문이다.

"많이 기다렸지. 타."

현진은 아침에 봤던 말끔한 제복 차림이었다. 올려다볼 때도 잘생기긴 했었지만, 내려다봐도 잘생긴 얼굴이었다. 구원은 자신이 생각해도 뜬금없는 현진의 외모를 향한 감탄에 고개를 젓고는 얼른 조수석에 탔다.

"일단 점심부터 먹고, 입소 절차 밟고 출입증 만들자. 핸드폰도 개통하고."

보통 이런 일들을 제일 먼저 하지 않나?

구원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현진도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았다.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 구원은 어제와는 또 다른 건물에 딸린 식당에서 현진과 식사를 했다. 현진은 식사하는 동안 "이 건물 식당은 한식이 맛있어."라고 말한 뒤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진의 말대로 김치찌개 정식은 여태 먹은 것들 중 가장 맛있었다. 물론 구원이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이 형편없어서 비교 대상이 시원찮긴 했지만 말이다.

"관련 없는 건 안 써도 돼."

식사를 끝내고 건물 내에 있는2층으로 함께 올라가 직원에게 서류를 받아온 현진은 그것을 펜과 함께 내밀며 말했다. 구원은 그것들을 받아 테이블에 올려 두고 펜을 쥐었다. 이름, 생년월일까지 막힘없이 쓰던 구원은 '입소 신고자 유형'에서 펜을 멈추었다. 에스퍼인지 가이드인지 표기하는 부분이었다. 그걸 본 현진이 검지 끝으로 가이드 부분을 톡톡 두드렸다.

'사실 구원씨가 가이드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교육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린 구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현진의 손끝 바로 옆에 있는 네모 칸에 브이 표시를 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서류에는 딱히 적을 것이 없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몰랐고, 외부에서 가져온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어 번호를 적을 수도 없었다. 애초에 고아였고, 입양된 부모와는 파양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가족도 없다. 입소 사유도 갑자기 잡혀 왔다고 쓸 수 없어 비워 두었다.

"저쪽 가서 사진 찍어서 서류에 붙여서 갖다주세요."

작성한 서류를 직원에게 가져가니 행정실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즉석 사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자신의 곁에 서 있는 현진과 직원을 번갈아 바라보던 구원은 말없이 즉석 사진기 앞으로 갔다. 빛 차단 용도로 보이는 파란색 커튼을 치고 설명대로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었다. 번쩍, 플래시가 터지고 눈앞에 무언가가 점점이 떠다녔다. 그 사이 화면에는 구원의 경직된 얼굴이 나타났고, 사진 밑에 '재촬영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예, 아니오 버튼이 떠올랐다. 침울한 표정과 훈련실에서 흘린 땀 때문에 떡진 머리카락 덕에 꼬질꼬질함까지 더해져 멈칫하게 만드는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씻고 오겠다는 말을 할 용기는 없었다. 현진이 훈련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 구원은 아니오 버튼을 눌렀다.

출력된 사진은 화면에서 보여주던 얼굴보다 훨씬 그늘지고, 침울하고, 꼬질꼬질해 보였다. 구원은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걸 몇 명이나 볼까 싶기도 하고, 곁에 서서 허락도 없이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 현진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다.

데스크 귀퉁이에 놓인 가위를 이용해 사진 여섯 장 중에 한 장을 조심조심 오려 서류에 붙이고 있자,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현진이 입을 열었다.

"나도 한 장 줘."

"이걸요?"

"어."

진심인가. 구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위를 들어 사진 하나를 더 오려 현진에게 건넸다. 현진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웃거나 놀리지도 않았다. 그저 받은 사진을 제복 재킷 안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이상해진 구원은 서류에 붙인 사진을 괜히 한 번 더 꾹꾹 누른 뒤에 직원에게 건넸다.

"칩은 내장으로 하실 거예요, 외장으로 하실 거예요?"

"네?"

"내장이요."

"네, 내장은 서류 검토 끝나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주 초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연락… 핸드폰 개통 아직 안 하셨네요. 어디로 연락 드릴까요?"

"여기로 연락 주세요."

칩은 전에 하얀 가운이 떠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구원이 얼을 타자 현진이 대신 대답하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건넸다.

"출입증은 내일12시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저기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옆에 설명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출입증 나와요."

현진의 번호가 적힌 메모장을 받은 직원이 데스크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구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현진이 가자며 몸을 돌렸다.

입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층으로 가 핸드폰을 개통했다. 특정 구역에서는 전파가 터지지 않고, 카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개조된 새 핸드폰을 받았다. 세팅을 마친 핸드폰을 받자마자 현진은 구원에게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주었고, 자신의 것에도 구원의 번호를 등록해 두었다.

이후로 구원은 현진과 옷 사이즈를 확인하러 갔다. 집 안에 자신의 사이즈에 딱 맞춘 옷과 신발이 가득한데 굳이 왜 가는 걸까 싶었는데, 구원이 입을 제복과 활동복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맞춤복을 위한 사이즈 확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내일 봐. 내일은… 1시에 데리러 올게. 점심까지 푹 쉬어."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시간이 늦었다며 저녁까지 먹은 후에 집에 데려다준 현진에게 구원이 물었다. 현진은 왜 그런 걸 묻냐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뭘 하나요?"

"아직 미정. 내일 오전에 결정될 거라."

"아, 네."

구원은 괜한 예측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계속 존댓말 할 거야?"

"네?"

"아, 모르나. 우리 동갑인데."

현진의 말에 구원이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05

“잘 쉬었어?”

“어어….”

현진의 물음에 구원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늦잠도 잤다. 그리고 따뜻한 흰 우유 한 잔에 딸기잼을 바른 구운 식빵 두 장, 계란 프라이, 양심상 추가한 샐러드 한 줌으로 아점을 즐겼다. 영원히1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주 천천히 아점을 먹었었다. 물론 휴식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지만 말이다.

‘너도 말 놔.’

어젯밤 현진은 구원의 집을 떠나기 전 말을 놓으라고 했다. 구원은 잘 자라는 말을 남기고는 멀어지는 현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말을 안 놓으면 터뜨려 죽이지 않을까.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했던 석필의 가족보다 단 하루를 함께 한 현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긴 했지만, 그건 얌전한 소형견을 본 대형견의 아량 정도일 거라 추측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를 일이었다. 게다가 사람을 그렇게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는 걸 봤는데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말을 놓긴 했지만 겁을 집어먹어 다소 어색하고 쭈그러든 말투가 흘러나왔다.

차를 타고 이동 중 당연히 멈출 줄 알았던 연구소 건물을 지나치는 지금 이 순간도 그랬다.

“오늘은 저기 안 들어가…나?”

멀어지는 연구소 건물을 보고 구원이 중얼거렸다. 혼잣말을 하는 것인지 현진에게 묻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중얼거림이었다.

"저긴 당분간 갈 일 없어. 우선 출입증 찾고 부대에 갈 거야."

"부대?"

"원래 부대를 먼저 가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

현진의 대답에 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슬그머니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을 생각은 없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둘은 어제 들렀던 행정실로 가 안내받은 대로 키오스크를 이용해 출입증을 받았다. 출입증엔 어제 찍은 사진과 구원의 이름이 한글과 알파벳으로 적혀 있었다. 구원은 몇 명이나 보겠냐며 아니오를 눌렀던 어제의 자신을 떠올렸다. …목에 안 걸고 다니면 되겠지. 전화가 걸려 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현진을 본 구원은 조용히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다음은 외부에서 가져온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이었다. 원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데 순서가 꼬인 것 같다고 말한 담당자는 핸드폰을 받아들며 옮길 데이터는 없냐고 물었다. 석필과 연락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던지라 옮기거나 지울 데이터 같은 건 없었다. 구원이 고개를 젓자 담당자가 진중한 얼굴로 되물었다.

"이거 부술 거라서 반납하면 끝인데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해놓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었다. 구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자 담당자는 알겠다며 받아 든 핸드폰을 챙겨 서랍에 넣었다.

칩과 제복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예전 핸드폰을 건네는 것을 마지막으로 둘은 행정 건물을 나왔다. 다시 차를 탄 현진은 어쩐 일로 "라디오 틀어 줄까?"라고 물었다. 머뭇거리던 구원이 고개를 두어 번 주억거렸다.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돌리던 현진은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채널에서 손을 멈췄다. 고요하기만 하던 차 안이 경쾌한 목소리와 노랫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

부대까지 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다.

머물고 있는 집이나 연구소 근처처럼 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길과 콘크리트 건물만 반복해 나타나 라디오를 틀지않았다면 가는 내내 지루했을 것이 분명했다. 휙휙 지나가는 반복되는 풍경을 보며 라디오를 듣던 구원은 차가 천천히 멈추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철창이 길을 막고 있었다. 현진은 철창 앞에 있는 기계에 출

입증을 스캔했다. 그러자 부저음과 함께 굳게 닫힌 철창이 천천히 열렸다.

"우선 부대장부터 만날 거야."

완전히 열린 철창을 보고 액셀을 밟은 현진이 말했다.

"그리고 훈련 담당자 만나고, 집도 이쪽으로 옮기고."

"집?"

"어. 거긴 임시라서."

"아…."

"혹시 꼭 가져와야 하는 거 있어? 웬만한 건 다 새로 사둬서 거기에 있는 건 다 버리라고 했는데."

"없어요. 아, 아니, 없어."

손사래를 친 구원이 빠르게 대답했다. 애초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집에 구원의 물건은 없었다. 사이즈를 맞춰 샀을 것이 분명한 새 옷과 신발을 버리는 건 아까웠지만 구원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둘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차는 어느새 부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다른 곳과 다르게 부대 앞 주차장은 제법 차가 있었고, 바깥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주차를 하고 부대 건물까지 걷는 짧은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현진과 구원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구원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각자 할 일이 바빠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눈을 굴려 주변을 훑어보고는 현진의 뒤를 쫓았다.

건물1층 가장 안쪽으로 간 현진은 굳게 닫힌 문을 노크한 뒤 상대의 답도 듣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커다란 테이블과 여러 개의 의자, 그 뒤로 또 다른 넓은 책상과 푹신해 보이는 흔히 말하는 회장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 방의 주인인 부대장은 푹신한 의자 대신 커다란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쳐두고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희 왔습니다."

"어어, 그쪽이 최구원씨?"

"안녕하세요, 최구원입니다."

심각한 얼굴로 펜을 든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던 부대장이 현진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구원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요."라고 말했다. 부대장실은 구원이 상상했던 딱딱하고 험악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건이랄게 없어서 다소 삭막하긴 했지만 그뿐이었고, 부대장도 날카로운 인상이긴 했지만 그리 강압적인 분위기를 풍기진 않았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우리 부대 새 식구니까 안면이나 트자고 부른 거예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최석필이 잘 가르쳤네."

구원의 태도에 부대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현진이 입을 열었다.

"이번 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일단 연구팀 협조문 받아 봐야지."

부대장의 말에 현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쨌든 필요한 건 사실이야. 너도 알잖아."

"모르겠는데요."

"애처럼 굴지 마. 네가 뭘 어떻게 느끼든 연구팀은 관심 없다고."

"……."

"일단 최구원이 가이드, 아니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인 수치야."

구원은 '제가 뭐요?'라고 묻고 싶었지만 애써 관심 없는 척 시선을 내리깔았다. 왜 다들 이렇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하다가 말까. 하지만 부대장이 무슨 말을 하려 했

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자신이 가이드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려 했을 것이다.

이쯤 되니 구원도 궁금해졌다. 석필에게 입양되어 내내 받았던 교육들이 에스퍼를 위한 가이드의 덕목이었다면, 자신은 진짜 가이드이기에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찾을 일 없는 고아라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이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들 이렇게 목을 매는지.

"아무튼 인사했으니까 됐다. 훈련 담당자 어디 있는지 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봐."

부대장은 현진을 대할 때와 다르게 구원을 향해 싱긋 웃어 보이며 인사했다.

"다음에 또 봐요, 최구원씨."

구원도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진과 함께 부대장실을 나왔다. 긴장한 것에 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만남을 가졌던 시간도 짧았다. 하지만 부대장실을 나오자마자 긴 숨을 뱉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긴장했었어?"

현진의 무표정한 얼굴이 가까워졌다. 놀란 구원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현진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훈련 담당자가 있는 곳은 당연하게도 부대 내 훈련소였다. 부대장실이 있는 건물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 현진과 동일한 제복을 입은 부대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몇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주차장에서 봤던 이들처럼 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하지 않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훈련 담당자 박재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가리킨 재상은 자신의 자리에서 얇은 책자를 챙겨 들었다.

"오늘은 가이드님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일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말투와 다르게 재상은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곳에 온 뒤로 이렇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저도 모르게 안정이 되는 것을 느꼈다.

"기본적인 부분을 검사하는 거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선 체성분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근력, 지구력, 자세, 움직임 등 체력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재상은 오늘 진행하는 테스트가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한 뒤 챙겨왔던 책자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가장 기본 훈련은 이런 형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반인들도 시행하는 유산소, 무산소 운동 종류들이 적혀 있었다. 그 외에도 태권도, 유도, 복싱, 사격, 클라이밍 등등 다양한 운동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운동이라면 구원도 석필이 살아있을 때 질리게 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깅이었고, 검정고시를 위한 홈스쿨링 이후 각종 운동을 섭렵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구원은 대부분의 운동에 소질이 없었던 탓에 실력이 늘지 않았고, 덕분에 석필은 툭하면 화를 내곤 했다. 석필이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했는지 알게 된 지금의 구원은 도대체 '에스퍼의 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가 이런 운동을 왜 배우는지 의문이 들었다. 재상은 구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가이드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에 거의 나가지 않고, 나가도 가이드님들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먼 곳에 있다고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에스퍼가 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잡혔을 때 알아서 살아남으란 소리 아닌가.

“개인 역량에 따라서 훈련 강도는 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의 속을 알 리 없는 재상이 씩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우선 체성분 검사부터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꾸만 나오려는 한숨을 꾹 참으며 몸을 일으킨 구원은 재상을 뒤따라갔다.

체성분 검사를 진행한 뒤 간단한 체력 평가가 이어졌다. 평가 항목은 단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였다. 임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넓은 훈련장으로 나온 구원은 재상의 설명에 한숨이 나려는 걸 다시 한번 참았다. 두려움이 아닌 지긋지긋함에서 나오는 한숨이었다. 석필이 살아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언제나 혼이 났었다.

‘이대로면 곤란한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항목을 보며 석필이 혀를 차던 것이 떠올랐다.

구원은 땀이 차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석필과 다르게 현진과 재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어 더 긴장되었다.

“혹시 평가 합격 기준이 있나요?

“합격이요?”

구원의 물음에 재상이 휘둥그레 눈을 떴다. 그리고 시선을 현진에게로 슬그머니 옮겼다가 다시 구원을 바라본다. 현진도 무슨 말을 하느냐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이드님 체력 상태 보려고 하는 거라서요.”

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는 재상을 보고 안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은근하게 밀려

오는 부담감은 석필에게 평생 들어온 질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평가는 장거리 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재상의 얼굴은 수시로 바뀌었다. 달리기와 오래 매달리기는 놀라울 정도로 잘하지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는 일반인이었다가 가이드가 되어 체력 평가를 받던 사람들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력이 매우 좋으십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인 장거리 달리기까지 마친 후 널브러진 구원에게 다가간 재상이 말했다. 구원은 일어날 힘도,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숨만 헐떡거릴 뿐이었다.

"우선은 근력 늘리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훈련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니9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리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바로 퇴근하십쇼."

누워있는 구원과 곁에 서 있는 현진을 향해 꾸벅 허리를 숙인 재상이 몸을 돌려 멀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원은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침을 삼켰다. 평소보다 무리해서 속도를 냈더니 좀처럼 호흡이 진정되질 않았다.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현진이 뒷짐 지고 있던 손을 풀며 무릎을 굽혀 쭈그리고 앉았다. 구원은 손등에 가볍게 닿는 차가운 느낌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치웠다.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생수병과 무표정의 현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잘했어."

무표정과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에 구원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난생처음 들어 보는 칭찬이었다.

06

집을 부대 내 숙소로 옮긴 후 구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석필의 집에서 했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식사를 하고 스트레칭 후 조깅, 그 뒤로 이어지는 갖가지 운동과 공부.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훈련 담당자인 재상과 종목별 코치들이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다르게 친절하다는 것과 훈련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숙소를 옮기고 며칠간 현진이 구원과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알려준 것도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부대의 어느 건물에 식당이 있으며,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었다. 현진의 도움으로 챙겨오지 못했던 신분증과 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연합 부지에서 사용할 자동차도 신청할 수 있었다. 제복과 활동복이 나오던 날은 함께 옷을 찾으러 가주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려주었다.이러한 과정을 현진은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늘 누군가에게 귀찮은 존재였던 구원에겐 현진의 태도가 신선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칩 나왔대. 오후에 다녀오자."

현진의 말에 구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 내서 대답하고 싶었지만 오전 내내 구른 탓에 기력이 다해 입을 열 힘도 없었다. 고장 난 인형처럼 힘없이 고개를 주억거린 구원은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오후에 이어질 훈련을 버티려면 밥이라도 잘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할만해?"

둘은 식사를 끝내고 건물 앞 공터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항상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현진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왜 못 하냐는 질타는 들어봤어도 할만하냐는 질문은 들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렸다.

"뭐… 응, 괜찮아."

잠시 말을 고르던 구원이 대답했다.

"힘들면 박재상 에스퍼한테 바로 얘기해. 그럼 프로그램 수정해 줄 거야."

박재상이 에스퍼였다니, 조금 특출난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구원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둘의 대화는 끝이 났다. 커피를 다 마시고 차가운 바람에 몸이 식어 으슬으슬해질 때쯤 자리를 털고 일어난 둘은 칩 삽입을 위해 의무실로 향했다.

"귀 뒤에 피부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삽입할 거예요. 칩 크기가 워낙 작아서 절개도 안 하니까 훈련에 지장 없으세요."

구원은 지장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말하는 대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사가 안내한 대로 의무실 안쪽에 준비되어 있는 처치실의 침대에 모로 누웠다. 간단하고 말한 것 치고는 등 뒤에서 한참을 부스럭거리는 의사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긴장되지 않았다. 그런데 밖에 있어야 할 현진이 처치실까지 따라 들어와 대뜸 손을 내밀며 물었다.

"손잡아 줄까."

"어? 어, 괜찮은데…."

구원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민 손을 거절하지 못했다. 커다란 손에 자신의 손을 헐겁게 얹어놓고 시술 준비를 하는 의사의 눈치를 봤다. 의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현진이라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차갑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낼 뿐이다. 의사는 차갑다는 말과 함께 알코올 솜으로 귀 뒤 접히는 부분을 쓱쓱 닦았다. 분명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알코올 냄새를 맡으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따끔합니다. 따끔."

찰칵, 탕!

귀 뒤 접힌 부분에 무언가 닿더니 의사의 평온한 목소리와 다르게 요란한 소리가 처치실에 울려 퍼졌다. 따끔함 보다는 큰 소리에 놀란 구원이 현진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절개는 하지 않았지만 붙여드린 방수 테이프 일주일간 떼지 마시고요. 샤워, 머리 감기 가능합니다. 자꾸 만지면 덧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항생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꼭 다 드세요.”

의사는 빠르게 시술한 부위에 방수 테이프를 붙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원은 제 할 말을 다다다 뱉어내고 처치실에 빠져나가는 의사를 보고 모로 눕혔던 몸을 일으켰다.

“고마워.”

구원이 잡고 있던 현진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현진은 온기가 빠져나간 손을 가볍게 말아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치실을 나온 둘은 의무실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받았다. 현진은 약사가 건네는 약 봉투를 굳이 자신이 받아 구원에게 건넸다.

“염증 안 생기게 약 잘 챙겨 먹어.”

납작한 약 봉투를 받아 든 구원은 그저 말없이 끄덕였다.

구원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현진을 볼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숙소 건물 앞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현진이었기에 첫날은 조금 늦나 싶어 기다렸다.하지만5분이 지나고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현진 때문에 구원은 그날 훈련에 지각했다. 재상에게는 늦잠을 잤다고 둘러대며 사과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현진은 보이지 않았다. 전날처럼 또 지각을 할지도 모를 일이라 곧장 식당으로 이동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현진은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구원은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고는 굳이 기다리지 않고 곧장 걸음을 옮겼다.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춘 현진이 신경 쓰이는 동시에 조금 짜증도 났다. 짜증이 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구원은 현진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지 않았다. 혹시나 메시지에 답이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기분이 더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요즘 현진 에스퍼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 헉… 게요."

현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특별한 개인 일정이 있을 때가 아니면 항상 구원의 근처를 지키고 있는 현진이 열흘째 보이지 않으니 재상도 궁금한 듯 했다. 구원은 덜덜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 올리며 재상의 말에 겨우 대답했다. 구원은 재상이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턱걸이를 시켜 놓고 건넬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음, 임무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재상의 말이 끝나자마자 턱걸이 횟수를 모두 채운 구원이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다.

"현진 에스퍼님은 보통 큰 임무를 맡으셔서 한 번 나가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구원은 재상에게 힘들어 죽겠으니 말 걸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주억거리며 바닥을 더듬어 근처에 있는 물병을 쥘 뿐이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겨우 뚜껑을 열며 대충 대답한 구원은 덜덜 떨리는 팔로 물병을 들어 올렸다. 이거 오늘 안으로 물을 마실 수는 있나.

"네. 항상 사지(死地)로 가시니까 말입니다."

"사지요?"

"네. 그래도 매번 살아서 돌아오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재상은 약간의 존경심이 담긴 표정을 지어 보이며 현진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다.

구원은 집에 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 앞에 그대로 뻗어버렸다.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구원은 한참 뒤 몸을 뒤집어 바로 누웠다. 구원의 움직임에 진작 꺼졌던 현관 센서등이 다시 켜졌다. 손을 들어 마른세수를 한 구원은 오렌지색으로 물든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유독 피곤했다.

구원은 그렇게 한참 누워있다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서야 겨우 상체를 일으켰다.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걸치고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일어선 구원은 잠갔던 현관을 다시 열고 집 밖으로 나갔다. 밥을 해 먹고 치우느니 식당까지 가서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1층으로 내려와 식당이 있는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식당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혼자 먹는 사람, 여럿이 어울려 먹는 사람 가지각색이었다. 석식 식단표를 확인한 구원은 한식이 나오는 배식구로 가 출입증을 스캔하고 식판을 들었다. 제육볶음,김치, 나물 반찬 세 종류, 국, 쌈 채소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작은 요구르트가 식판을 가득 채웠다.

"어? 구원 가이드님! 식사하십니까?"

"아, 네네."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구원은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빈 식판을 들고 있는 재상이 서 있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같이 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하하, 그러게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을 붙이는 재상을 보고 구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재상이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퇴식구로 향했다. 재상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발을 옮긴 구원은 제일 구석진 자리로 가 앉았다. 그리고 수저와 함께 챙겨온 물티슈로 손을 벅벅 닦은 뒤 싱싱한 상추 위에 하얀 쌀밥을 올리고 제육볶음을 얹어 쌈을 쌌다.

"너네 선우현진 얘기 들었어?"

쌈을 먹기 위해 입을 벌렸던 구원은 근처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에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아아. 들었어, 들었어. 계륵 또 사지로 보냈다며?"

"지독하다, 지독해."

"일부러 보내는 거 아니야?"

"진짜 죽으라고 보내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아득바득 살아서 돌아오고."

"아, 이런 걸 보고 눈치 뒤졌다고 하나요."

쑥덕거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구원은 들고 있던 쌈을 조용히 내려놨다. 한 무리에서 시작된 현진에 대한 이야기는 불이 번지듯 다른 이들의 입에도 오르내렸다. 대부분 '또 사지로 보냈냐'는 이야기로 저들끼리 이런저런 추측을 해댔다. 현진을 비웃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구원은 사람들의 거리낌 없는 대화에 입맛이 뚝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속이 텅 빈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입이 써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졌다. 받은 음식들이 아까웠지만 구원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원이 퇴식구로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현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살아 돌아올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구원은 그들의 대화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서 빠른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왔다.

"단체 생활 힘드네."

집에 들어와서야 겨우 입을 연 구원이 중얼거렸다.

'저 사람 계륵 가이드 아니야?'

'아… 최박사가 갖고 있었다던? 근데 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고귀한 L급이 원하는데 강제로라도 만들어 주겠지.'

‘되겠냐. 솔직히 연구소만 노났지. 매칭 확률 알아본다는 핑계로 온갖 연구 다 해 볼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연구소에서 실험한다고 오라 마라 하는 거 완전 짜증 나.’

‘그건 그래.’

구원은 목소리도 낮추지 않고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노려보지도 못했다. 얻어터지더라도 들고 있던 식판을 던졌어야 했나.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직행해 주저앉은 구원은 몸을 기울여 상체를 눕혔다.

“으으….”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구원이 앓는 소리를 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능력을 가진 에스퍼가 섞여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구원에겐 그럴 배짱도 없다.

죄 없는 쿠션에 주먹을 몇 번 지른 구원은 찝찝함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식당으로 가서 쑥덕거린 사람들의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구원은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것을 그만두고 옷을 챙겨 욕실로 갔다. 샤워를 하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 나빴던 일들은 까맣게 잊을 것이라고 되뇌며 말이다.

07

현진이 다시 나타난 것은 구원이 날짜 세기를 포기하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원은 식당에서 들었던 현진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잔상처럼 귓가에 남아 맴도는 그들의 비아냥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잊으려 애쓰는 것도 포기했을 때쯤, 구원은 현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구원 가이드님, 연구소에 있는 제1연구실로 지금 바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소요?”

재상의 말에 훈련 전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구원이 움직임을 멈췄다. 연구소라면 부대 내로 거처를 옮긴 뒤 갈 일이 없던 곳이었다.

"네, 현진 에스퍼님이 돌아오신 모양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는 재상의 입에서 나온 현진의 이름에 구원이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삼켰다. 갑자기 심장 고동 소리가 커지고, 귓가에는 이명이 들렸다. 속이 울렁거리면서 초조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구원은 재상에게 자신의 변화를 들키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감정을 갈무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소 갈 줄 아십니까? 모르시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재상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 구원이지만 이번엔 고개를 저었다.

"갈 줄 알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들뜬 재상과 함께 연구소에 가는 것은 긁어 부스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재상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선의로 제안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느낌이 그랬다.

구원은 들고 왔던 짐을 그대로 챙겨 훈련소를 나왔다. 조금씩 빨라지던 걸음은 뜀박질로 바뀌었다. 긴 복도를 지나 훈련소를 나온 구원은 건물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차에 타자마자 숨 고를 틈 없이 시동을 걸고 핸들을 꺾었다.

"어, 구원씨 오랫만이에요."

"…현진이는,"

연구소에 도착한 구원을 반기는 건 하얀 가운의 웃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빨리 와 줄 줄은 몰랐네."

정말 놀란 것인지 빈정거림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말투로 중얼거린 하얀 가운이 구원에게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 했다. 넓은 연구실 안에는 구원이 처음 부대에 왔을 때처럼 많은 연구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엔 부대장도 함께 있었다.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대장님."

"어어, 그래요.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이참에 제대로 수치 확인도 해볼 겸 불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구원의 물음에 부대장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커다란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 위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에 걸터앉아 있는 현진이 있었다. 정말 임무를 막 끝내고 온 것인지 꼴이 말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검댕이 묻은 얼굴, 흙먼지와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가 묻은 옷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보이는 것만 봐서는 무척 지쳐있으리라 추측 되었다.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좀 긁힌 정도…로 보이고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능력 사용이 많아서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팀원들 얘기로는 폭주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럼 간단한 가이딩만 하면 끝이려나."

마침 상태 확인을 끝내고 돌아온 연구원의 보고에 하얀 가운이 아쉽다는 듯 턱을 문질렀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봤자 의미 없다는 듯 손뼉을 마주쳐 짝 소리를 내고는 "그럼 얼른 시작합시다!"라고 외쳤다. 부대장은 별말 없이 연구실 내에 있는 의자로 가 앉았고, 하얀 가운은 현진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문을 열어주며 구원에게 어서 가보라며 손짓 했다.

"전에 교육 때 배우셨죠? 가서 현진씨 손 꼭 잡아주시면 돼요."

등 떠밀리듯 통로 안으로 들어간 구원은 미리 준비 되어 있는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 질릴 정도로 하얀 복도를 한참 달려 도착한 넓은 공간에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현진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전동 카트에서 내린 구원이 터벅터벅 현진에게로 다가갔다.

많이 지친 모양인지 현진은 구원이 자신의 바로 앞으로 올 때까지도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구원은 현진의 앞에 서서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는 작고 동그란 머리통을 내려다봤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석필의 가르침 중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없었다. 구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현진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손잡아도 돼?"

"……."

시야에 들어온 구원의 하얗고 마른 손과 귓가를 울리는 미약하게 떨리는 작은 목소리에 현진이 고개를 들었다. 반쯤 풀려 있던 현진의 눈동자에 서서히 촛점이 돌아왔다.

"최구원…?"

"그래, 나야."

"…잡아줘."

둘은 서로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구원은 대답과 함께 자신의 앞에 내밀어진 현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눈물 겨운 상봉이네요."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하얀 가운이 빈정거리며 말하고는 작은 모니터에 현진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확인했다.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도 안 들리네요."

"도청기라도 붙일 걸 그랬나봐요."

곁에서 둘의 모습과 그래프를 확인하던 연구원들이 한 마디씩 덧붙였다. 곁에서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대장도 아쉽다는 듯 "그러게."하고 중얼거렸다.

불안정하게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던 그래프는 구원이 현진의 손을 잡은 시점부터 천천히 완만하고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현진의 상태에 부대장은 눈을 빛냈고, 하얀 가운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미국 연구팀에서 주장하는 '운명의 상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오죠"

"아, 그거요. 사례 보면 혹하기는 하던데… 운명이라니 너무 추상적이라서 논문을 봐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최 박사님도 운명의 상대 이론 지지자셨잖아요."

"그러네. 최 박사님도 툭하면 운명의 상대가 어쩌고 했었죠."

"근데 진짜 빠르지 않아요? 에스퍼 대부분 가이딩 시작하고 안정권까지 들어가기까지 빨라야 15분이잖아요. 저 두 사람이 말씀하신 운명의 상대이거나, 최구원이 엄청난 가이드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뭐가 됐든 흥미롭긴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최구원이 가이드가 아닌데 선우현진의 믿음이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플라시보 현상으로요. 선우현진에 대한 보고서 보면 어릴 때부터 최구원이 가이드라고 가이드라고 꾸준히 교육받았다고 하는데요."

"플라시보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얀 가운의 말에 연구원들이 저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하얀 가운은 갑자기 운명의 상대 이론과 최구원에 대한 토론으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는 연구원들을 뒤로한 채 화면 속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를 위해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성스러운 명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는 둘의 모습에 하얀 가운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일 때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며 말했다.

"아무튼 이 정도면 최구원 가이드 확실한 거 아닌가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게 부상당하거나 폭주 직전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아까 말 나왔던 플라시보 현상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만… 사지로 보내도 멀쩡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기약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기엔 선우현진을 이길만한 에스퍼가 없으니…."

저마다 의견을 내는 연구원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하얀 가운이 뒤늦게 입을 열며 부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가장 빠른 방법은 임무 개수를 늘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대장님.”

“갑자기 안 보여서 놀랐어.”

연구소를 나와 허허벌판인 주차장에 도착하자 구원은 걸음을 멈추고 반걸음 늦게 뒤따라오는 현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현진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놀랐다는 걸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뱉은 말이었다.

“얼만큼?”

“어?”

구원은 ‘그랬구나.’ 정도의 싱거운 대답을 예상했었다. 재수가 없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정도겠지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얼만큼 놀랐는데?”

둘 사이에 있던 반걸음의 거리마저 좁히고 바짝 다가온 현진이 다시 물었다. 분명 무표정인데 들뜬 것처럼 보인다면 너무 넘겨짚은 것일까. 구원은 정면으로 마주해오는 현진의 곧은 시선에 기가 눌려 눈을 내리깔았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그런 걸 왜 물어봐…!”

잔뜩 쫄아붙어 어깨까지 움츠린 구원이 왜 모르냐는 현진의 말에 쏘아붙였다. 그리고 아차 싶어 아랫입술을 깨물며 이리저리 눈을 굴렸다. 구원은 석필에게도 참지 못하고 생

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 자주 벌을 받았었다. 무릎 꿇고 손들기는 기본이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 갇히거나, 영하로 떨어진 날 외투 없이 집 밖에 서 있기, 어쩔 땐 사랑의 매를 빙자한 매타작 등등 갖가지 방법으로 벌을 받았었다.

현진은 어떨까? 구원은 슬그머니 시선을 들어 올리며 현진의 행동을 예상을 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큰 소리를 냈으니까 이럴 땐 보통….

"궁금하니까."

"…어?"

예상치 못한 반응에 구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그만큼 날 생각했다는 거잖아."

현진의 말에 구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구원은 자신의 얼굴에 왜 열이 오르는지도 모른 채 벌어진 입을 뻐끔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궁금해."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답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이 놀랐지."

구원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떻게 안 놀라? 다들 놀랄걸."

얼굴이 뚫어질 것 같은 현진의 시선을 다시 한번 피하며 구원이 꿍얼거렸다. 시선을 내리깐 채 눈 맞추기를 피하는 구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현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놀라게 해서 미안."

"……."

"다음부터는 꼭 말하고 갈게."

"응…."

구원은 부드러운 현진의 목소리에 가라앉았던 얼굴의 열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한발짝 물러선 구원은 주차장에 있는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피곤하지? 차 안 가지고 왔는데 내가 태워 줄게."

"그래."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는 현진을 보고 구원이 얼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로 허둥거리던 것과 달리 구원은 능숙하게 운전했다.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석필의 권유로 면허를 땄다더니 운전 경력도 꽤 되는 모양이었다. 현진은 조수석에 앉아 차창에 비치는 집중한 구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뗐다.

"구원아."

"응."

"나랑 같이 살래?"

끼익!

놀란 구원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지금 뭐라고,"

"나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

08

‘여기 좀 다녀와라.’

부대장실 문을 열자마자 무심한 한마디가 툭 날아들었다.

부대장은 신문에 있는 끝말잇기 힌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고 있던 펜으로 넓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뭉치를 가리켰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별말 없이 서류를 집어든 현진이 내용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미 시작된 작전인데 제가 왜요.’

‘그야… 끝이 안 나니까 그렇지.’

‘…….’

‘우리 쪽 피해가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펜 끝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하던 부대장이 빈칸에 답을 적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네가 일도 해결해 주고, 애들도 살려주고 해달라 이거지.’

대답이 없는 현진을 향해 말을 덧붙인 부대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서류를 보던 현진이 눈만 치켜떠 그런 부대장과 눈을 맞췄다.

‘이런 일을 너 말고 누가 하겠니.’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싱긋 웃는 부대장의 얼굴에 현진은 보기 싫다는 듯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그리고 서류를 몇 장 더 훑어 보고는 그대로 내려놓았다.

‘바로 출발해 줬으면 하는데.’

‘알겠어요.’

‘역시 너밖에 없다, 현진아.’

현진은 부대장실을 나오자마자 언제부터 대기하고 있었는지 모를 현장 지원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현장 지원팀은 심각한 얼굴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현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곧장 부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뿐이었다.

도착한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 출발 전 현장 지원팀의 보고와 다르게 팀원의 절반은 부상으로 작전에 참여할 수 없었고, A급 에스퍼 두 명이라던 것과 달리 S급 에스퍼가 한 명 더 있었다. 현장 지원팀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인지, 중간에 현장팀과 소통 불능으로 발생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유가 어느 쪽이든 현진이 수고로워지는 것은 변함없었다. 게다가 비협조적인 팀원들 덕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능력을 할애해야 했다. 그럼에도 현진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대장의 요청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팀원들도 살려서 부대로 복귀했다. 상태 체크를 위해 연구소를 들러야 한다는 점이 짜증 나긴 했지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군말 없이 제1 연구실 내 테스트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아도 돼?’

현진은 구원의 가이딩으로 안정을 되찾은 몸 상태보다도, 구원이 저를 걱정했다는 것이 더 큰 보상으로 느껴졌다.

‘갑자기 안 보여서 놀랐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말은 현진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했다.

“이건 좀… 테스트도 해보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부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 구원은 생각보다 쉽게 동거 제안을 수락했다. 문제는 부대장과 연구팀이었다. 구원과 함께 살겠다는 현진의 말에 모두 반기를 들었다.연구팀은 몰라도 제 말을 순순히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부대장이 먼저 고개를 젓자 현진의 얼굴이 처참하게 구겨졌다. 영문 모르고 현진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구원은 순식간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눈을 굴렸다.

"그 테스트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다른 에스퍼들도 가이드 파트너십 맺기 전까지 적어도 열 번은 테스트합니다. 현진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고작해야 두 번밖에 못 했잖아요?"

이래선 구원을 이곳에 데리고 온 의미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지만, 연구가 우선인 연구팀에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반응이었다.

"테스트 횟수 채울 상황도 안 되잖습니까."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현진이 말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지 하얀 가운이 입을 다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에스퍼들의 경우 레벨이 낮은 만큼 작전 참여 횟수도 높았다. 그만큼 자주 다쳤고, 폭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잦았다. 하지만 현진은 달랐다. 사지에 던져놔도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데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폭주 위험에 놓인 적이 없었다. 그런 현진이 테스트 횟수를 빠르게 채우려면 일부러 다치거나 폭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자,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하얀 가운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현진을 향해 부대장이 손사래를 쳤다. 그 사이 눈치를 보며 상황을 살피던 구원이 마가 뜨는 순간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처음 만나자마자'질문하지 않을 것.'을 규칙으로 내세웠던 하얀 가운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다. 반면 부대장은 말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기… 저 가이드 아니었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사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말에 부대장과 하얀 가운의 표정이 묘해졌다.

"물론 가이드 맞지, 그래도 같이 살려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말끝을 흐리는 부대장의 모습에 하얀 가운이 한숨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입을 열었다.

"엄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현진씨가 구원씨와 함께 있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가이딩의 효과인지 아니면 플라시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거를 하면, 구원씨와 있을 때와 아닐 때의 상태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구원이 현진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 현진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해 하고 싶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구원은 현진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되었든 다 큰 성인 둘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데에 이렇게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 하얀 가운이나,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고 은근하게 편을 드는 부대장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별걸 다 간섭하네."

일장 연설을 하는 하얀 가운의 말을 흘려들으며 테이블 위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던 구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하!"

"뭐라고요?"

구원의 말에 현진은 웃음을 터뜨렸고, 하얀 가운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과장되게 반응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석필은 구원에게 입버릇처럼'그 입 좀 조심해라.나중엔 이 정도로 안 끝날 거야.'라고 말했었다. 자신에게 대드는 꼴이 보기 싫어 경고하는 줄 알았던 석필의 말은 사실 진실된 조언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구원은 생각했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연합 소속 타 국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씨가 지금 한 발언은 단순히 연구팀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연합 전체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얀 가운은 부대장의 만류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넵, 주의하겠습니다."

테이블까지 탕탕 내리치며 겁을 주던 하얀 가운은 심플하다 못해 싱겁기까지 한 구원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차라리 반항을 하거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눈물이라도 짜냈다면 더 몰아붙였을 텐데, 순순히 주의하겠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더 이상 분풀이를 할 수 없게 되자 하얀 가운은 벌렸던 입을 꾹 다물며 화를 삭혀야 했다.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긴 한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부대장이 턱을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부대장에게로 쏠렸다.

"구원 가이드가 현진이 작전할 때 같이 가는 건데… 이건 너무 위험해서 말이야."

구원은 이곳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테스트를 떠올렸다. 눈앞에서 피를 튀기며 싸우던 에스퍼들을 보고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때를 말이다.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너무 위험한 정도가 아닌데요. 아무리 절차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경우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둘이 연합 부지를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것을 현진은 납득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부대장이 제안한 테스트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몇 년 전 에스퍼가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가까운 곳에 가이드가 있을 경우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 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야 너는 특별하니까.”

현진의 반박에 부대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부대장은 이 테스트에 관해서 이미 하얀 가운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애초에 구원을 어릴 때부터 훈련 시킨 것도 현진과 함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할 과정이었지만, 급할 것 없었기에 나중으로 미룬 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면 부대장 입장에선 미끼를 던져볼 만한 상황이었다. 만약 둘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당장은 상관없었다. 지금은 현진과 구원의 사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강요는 아니야.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래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말해주는 거야. 만약 한다고 하면 당장 들어갈 임무는 없지만 조만간 하나 생기겠지.”

부대장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곤, 방금 한 말은 별거 아니라는 듯 다른 주제로 대화를 꺼냈다.

“그나저나 둘이 금방 친해져서 다행이야.”

09

실전은 모의 훈련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구원은 첫날 교육을 통해 에스퍼가 테러범과 싸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는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말이라도 현진에게 부대장이 제안한 일을 해보자고 말할 수 없었다.

현진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투입되는 작전은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은 것들뿐이었다. 구원과 한 집에 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의 목숨을 걸 수 없는 일이었다.

부대장, 하얀 가운과 대화를 끝내고 나온 둘은 말없이 긴 복도를 걸었다. 건물을 아예 나와 구원이 훈련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접어들었을 때가 되어서야 현진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먼저 목소리를 낸 건 구원이었다.

"저기, 혹시… 일부러 다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지?"

"……."

말이 없는 현진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구원이 걸음을 멈추고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아니지? 나중에 같이 살면 되잖아. 그거 뭐 테스트 좀 늦어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어디 가게 되면 꼭 연락할게."

현진의 말에 안심한 구원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럴게. 나는 어디 갈 일 없을 것 같지만…."

"하하."

구원의 대답에 현진이 웃었다. 묘하게 기운이 빠져 보이는 현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구원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가끔 내가 사는 곳 놀러 와."

"응."

"나도 너네 집 놀러 가…도 되지?"

"그럼."

조금 전보다 나아진 듯 보이는 현진의 얼굴에 구원이 미소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난 뒤에야 잠자코 있던 하얀 가운이 입을 열었다.

"부대장님 현진씨한테만 너무 유하신 것 같아요."

"유한 게 아니라 그때 가이드 죽은 거 뻔히 아는 애한테 괜찮으니까 그냥 하라고 어떻게 말해?"

"그건 그렇지만, 잘만 구슬렸으면… 솔직히 좋은 기회였잖습니까."

하얀 가운의 말에 부대장이 코웃음을 쳤다.

"준서 죽은 것 때문에 태영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잘도 나오나 보네."

"어차피 그건 사고였잖아요!"

"그렇지, 사고였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흔한 사고. 근데 사고든 뭐든 김준서는 죽었고, 주요 전력이었던 문태영은 폐인 돼서 써먹지도 못한다는 거야."

"……."

"그리고 그때 승급 말아 먹은 것 때문에 여태 이 지경으로 있는 것도!"

점점 커지는 부대장의 목소리에 하얀 가운이 조용해졌다.

"후…."

부대장이 길게 숨을 뱉으며 재킷 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여 깊게 첫 모금을 빨아들였다가 연기를 뱉는다. 잇새에 담배를 문 채 자리에서 일어난 부대장은 답답하다는 듯 창가로 가 창문을 열었다. 차갑다 못해 시린 공기가 방 안을 순식간에 채웠다.

“최석필 죽고 그 자리 차지하니까 뵈는 게 없어?”

“아닙니다.”

“걔네 데려다가 연구하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기어오르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얀 가운의 반박에 부대장이 미간을 구겼다.

“죄송합니다.”

하얀 가운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현진과 구원을 이용해 진행할 연구를 위해서 당장은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가이딩은 에스퍼와 가이드가 신체 접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정론으로 여겨지고 있다.가볍게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포옹, 키스, 잠자리까지 서로 맞닿는 부위가 커지거나 점막 접촉을 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뻗어 나온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운명의 상대’였다. 친밀도와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스킨십이라는 행위로 회복과 안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에스퍼와 가이드가 운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얀 가운은 운명의 상대 이론보다는 ‘거리’ 가설에 관심이 더 컸다. 굳이 손을 잡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는 등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때도 에스퍼가 안정을 느끼는 현상에서 나온 이론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에스퍼가 안정을 느낀다면, 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정 거리를 알아내 가이드를 작전에 함께 투입할 경우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거리 가설의 포인트는 에스퍼의 효율적인 능력 구현과 폭주 억제, 부상 횟수를 줄여 더 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연합회에서는 환영할 만한 가설이었지만, 이론이 아닌 가설로 불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이드가 일상생활을 하던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례를 만들만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석필은 운명의 상대 이론 지지자인 동시에 거리 가설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운명의 상대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 거리 가설은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만 나온다면 연합 내 연구센터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석필은 운명의 상대 이론과 거리 가설을 위한 샘플로 현진과 구원으로 정하고 나름의 데이터를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 가설의 경우 자신의 소중한 샘플을 첫 사례로 사용할 순 없었다.

그렇게 선정된 거리 가설의 첫 샘플은 태영과 준서였고, 이 작전에서 준서는 사망했다.

부대 전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오직 승급만을 위해 태영과 준서를 연구팀에 던져줬던 부대장은 당연히 승급 심사에서 제외 되었다. 여전히 자신의 승급을 위해 연구팀에 타 부대장들에 비해 협조적인 편이긴 하지만, 그때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 일단 대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부대장이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기다렸던 하얀 가운이 겨우 입을 열었다.

"하… 일단 기다려봐. 계륵도 구르다 보면 어디 하나 부러지든 터지든 하겠지."

그러자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긴 부대장은 하얀 가운에 나가 보라는 듯 손짓했다.

"헉, 허억…."

구원은 장거리 달리기를 끝내자마자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한 현진이 '오늘 왜 조금 먹어? 더 먹어.'라며 건네는 토스트를 거절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주는대로 먹었다면 완주하지 못하고 구토를 했을 것이 분명했다.

"역시 달리기는 확실히 잘하십니다!"

대자로 뻗은 구원의 곁에 쭈그리고 앉은 재상이 그간의 기록과 비교하며 감탄했다.

"참 신기합니다. 근력은 좀처럼 늘지 않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문제이니 꾸준히 하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런 걱정 따윈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낼 기운도 없었다.

"오늘 오후는… 상체 단련입니다. 빡세게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 자세를 취하는 재상을 보고 구원은 눈을 깊게 감았다가 떴다. 빡세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조용히 몸을 옆으로 굴려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생수병을 들었다. 500ml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어흐."

한숨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애매한 소리를 내며 바로 앉은 구원은 문득 최근 묘하게 훈련 강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필도 훈련 시 야금야금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었다. 하지만 현진과의 동거를 거절당한 뒤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이드가 작전에 투입되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괜히 신경 쓰였다. 하얀 가운은 자신의 훈련에 관여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부대장이 전자의 이유로 강도를 높였다기엔 그리 쪼잔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비용이라고 하기엔 이야기가 나왔던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

18년간 먹은 눈칫밥이 이럴 땐 소용 없다니.

구원은 눈을 굴려 재상을 바라봤다.

"저기… 훈련은 재상 에스퍼님 혼자 계획 짜시나요?"

재상이 현진에 관한 것을 알 리 없다는 것을 구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쩍 질문을 던져본다.

"아닙니다. 가이드님들 훈련은 이미 단계별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통해서 개인 역량에 맞춰서 이미 짜여 있는 훈련 단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 가이드님은 조금 예외라서… 아, 아무튼 제가 짜는 거라고 할 순 없습니다."

재상이 수상하게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구원이 뭐라도 더 캐볼까 싶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재상이 더 빨랐다.

"아무튼 최근 가이드님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씩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긴 한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느끼지 않을까.

구원은 어색하게 웃어 보이곤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생각을 막기 위해 생수병 뚜껑을 따 물을 마셨다. 그 사이 재상이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쉬다가 식사하시고1시까지 웨이트 훈련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를 남기고 사라지는 재상의 뒷모습을 보던 구원이 다시 생수병을 입에 가져갔다.꿀꺽꿀꺽,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던 구원은 자기 머리 위로 지는 그늘에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물 마시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드니 거기엔 자신과 똑같은 훈련복을 입은 사람 셋이 서 있었다. 구원이 처음 연합 부지에 들어와 지금까지 나눈 대화는 모두 필요에 의해서였다.물론 현진은 제외하고 말이다. 가끔 재상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곤 했지만, 그마저도 정말 가끔일 뿐이었다. 눈앞에 있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구원은 이 상황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구원 가이드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의 물음에 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세 사람은 갑자기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구원이 눈앞에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진짜네."

"소문보다 별론데?"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너무 곱상한 것 같은데."

"계륵 취향일지도."

"푸하하."

구원의 코앞에서 외모에 대해 떠들던 셋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구원을 내버려두고 자리를 떴다.